

고대 희랍 철학의 간략한 역사

(이 부분은 고대 희랍 철학의 역사 전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기억하면서 정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학파	학자들	내용	중요성
1. 밀레투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탈레스	만물 : 물에서 나옴	최초의 학적인 생각 추상적인 사고 생성과정 설명
	아나시만드로스	만물 : 무규정자에서 나옴	
	아나시메네스	만물 : 공기에서 나옴	
2. 피타고라스 학파		만물 : 수로 되어있다.	알 수 있는 것, 확정적인 것에 대한 선호.
3.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보편적 원리인 로고스의 도입
4. 엘레아 학파	파르메니데스	변화란 없다.	감각 경험으로부터 사유를 분리함
	제논	역설로 옹호	
5. 다원론자들	엠페도클레스	4원인설	앎의 대상과 경험의 조화
	아낙사고라스		
6. 원자론자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만물은 원자들의 이합집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연철학의 완성
7.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상대론자	인간의 문제로 관심을 돌림
	소크라테스	대화법, 산파술	
8. 플라톤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철학적 문제를 종합	고대 철학의 종합과 서양철학의 시작
9.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적인 입장에서 학문의 체계를 재구성.	우리의 경험적 직관에 맞는 방대한 체계를 구성.

1. 밀레토스 학파(이오니아 학파)

A. 탈레스(Tales)

○ 문제제기 : 탈레스는 왜 철학의 시조로 여겨지는가?

밀레토스 학파의 선두주자인 탈레스는 통상 철학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제시하여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탈레스의 주장 : “만물의 아르케(arche)는 물이다”

이 주장 자체가 탈레스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르케”는 “원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시작점”, “원리”, “지배하는 것” 등을 뜻한다.

- 탈레스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 : 만물이 ‘물’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의 보다 저변에 있는 것, 즉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는가, 혹은 이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킨 문제의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편〉

(i) “땅은 물 위에 떠 있는데, 여기서 물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다.”

⇒ 이 (i)은 두 부분으로 나뉜.

a.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는 만물은 물로(ex) 되어 있다.)

b. 땅은 물 위에 떠 있다.

(ii) 명백하게 생명이 없는 사물들도 ‘살아있다’; 세계는 신들(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1) 단편 (i)의 a에 대한 주석

아르케가 최초로 사유되었다.

아르케를 물이라 했는데, 이로 보아 탈레스의 아르케는 질료적 원질이라 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 최초로 철학하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아르케를 물질적(질료적) 영역에서의 최초의 근원으로 이해했다. - 형이상학적인 태도.

- “...로”(ex)의 뜻

1) ex - ...로 되어 있다.

- ...에서 생겨났다.

⇒ ‘ex’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탈레스는 첫 번째의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에 내포된 ‘생성’의 개념이 탈레스에게 있었다는 것은 물리학적 추측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는 최초로 우주의 질료(일종의 원인)를 설명했다.

(이로 보아 첫 번째 의미로 생각했다고 평가됨.)

→ ‘물’이라는 답변의 두 가지 성격(아리스토텔레스의 탈레스 이해)

첫째, 만물의 아르케는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성격이고

둘째, 이 '물'로부터 만물이 스스로 생성되었다는 물활론적인 성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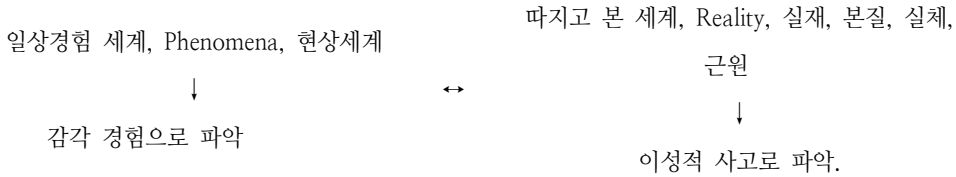
물활론의 기본 생각 : 탈레스의 '생성' 모형은 "씨 → 열매", "달걀 → 닭"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原因"에 대한 물음이 없이, 탈레스에 있어서는 만물이란 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나온 것이 된다.)

(i)의 a의 두가지 전제된 사고 방식

① 일원론적 경향 : 아르케를 물 하나로 여긴 사실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② 이분법적 사고방식 : 철학적·철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함.

즉,



○ 형이상학적인 태도의 시작

- 이른바 '현상'과 '본질'을 나누어 보는 사고가 시작된 것. → '감각'과 '이성'을 대비시키는 전통으로 발전.

(2) 단편 (i)의 b에 대한 주석

- 단편 (i)의 전 문장에서 보이듯이, 탈레스는 b가 a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 아리스토텔레스 : b는 생물이 물기를 가진다는 관찰에서 유래했다.

→ 만일 그렇다면 b는 생물 세계의 범주를 사물 세계에 적용한 것이 된다.

(3) 단편 (ii)에 대한 주석

<아리스토텔레스> : (ii)에 의하면, 물질세계가 살아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생명, 즉 살아있음은 움직임의 원리라고 이해된다.

→ 단편 (i)의 b와 (ii)의 의미

; 최초의 철학적 사고는 항상 세계를 인간의 측면에서부터 해석했다. 즉 의인화된 개념으로 세계를 질서지었다.

(4) 보론 - 탈레스를 학의 시조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호머(Homer)도 신들은 okeanos(큰 물덩어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okeanos는 고유명사로서 초자연적인 신을 부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호머는 아직 신화적 사고에 머무르는 반면, 탈레스의 '물'은 자연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탈레스가 학의 시조가 된다.

- 서양철학사 전체에서 '학문적인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제일 처음 부여.

(그러나 초기의 사유에서는 자연적-초자연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화와 학문의 경계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결정하는 데는 난점이 따른다.)

B. 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ros (Anaximander)

〈단편〉

- (i) 만물의 아르케는 아페이론(apeiron)이다.
- (ii) 천체와 세계는 아페이론으로부터 나오고, 세계가 망하면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
- (iii) ‘필연성에 따라’(according to necessity) 세계는 소멸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것들(만물)이 부정의(injustice)의 대가로 죄를 받고, 다시 분배되기 때문이다.

(1) 단편의 물음들.

- 단편(i) -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 단편(ii) - 만물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 단편(iii) - 만물은 어떻게 나왔는가?
- 탈레스보다 ‘ex’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 단편(i)에 대한 주석

- 아페이론에 대한 직역 : ‘금이 없다’, ‘경계가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 - 무한자(the infinite) → 시공간적 무한성
- Kirk & Raven의 해석 - 무규정자(the indefinite) → 특정 성격이 없음.
- 이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 왜 아르케를 아페이론이라 생각했는가?

① 희랍인들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호머적 세계관의 붕괴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우주의 질료적 원인도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결과가 원인보다 클 수 없으므로.)

② 만일 아르케를 특수한 자연물 중 하나로 본다면,

아르케에 상반된 성격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

예) 물 불 흙 공기

 | | | |

차다 ↔ 뜨겁다 무겁다 ↔ 가볍다

그러므로 아르케는 이러한 상반성을 넘어서 있는 것, 즉 자연물은 아닐 것이다. → 아페이론이다.

- (i)의 사고 구조 - 이런 생각은 탈레스보다는 더 추상적·보편적 존재의 원리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희랍적 사유의 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현상들 사이의 대립을 유지하면서 잘 조화시켜나가는 것.(호머적 특징.)

즉 조화란 대립함을 넘어서는 것인데, 따라서 현상의 대립을 넘어선 아페이론이 궁극적 원리로 제시되었다.

(3) 단편 (ii)와 (iii)에 대한 주석

- (ii)와 (iii)은 아페이론에서 현상이 나오는 발전과정을 설명한 것임.

따라서 방점은 “필연성에 따라”에 찍혀야 한다.

⇒ 필연성의 근거: 현상들이 상호범한 ‘부정의’에 대해 보상해야 하므로.

(부정의 - 대립되는 것들의 계속적인 상호잠식)

|

dike를 깨뜨림, 자기 몫을 정도를 넘어섬 → 가장 큰 죄.

‘부정의’는 원래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연현상에 또 확장적용됨.

- (ii)와 (iii)에서 형성된 문제 : 근원적인 제일자에게 있어서 모든 대립이 해소된다고 복, 모든 다자(多者)를 이 제일자에서 이끌어내는 문제.

(4) 우주론

-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무한한 우주’에 ‘중심’이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지 않다.

- 어쨌든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서,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에서 미치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 이런 설명은 탈레스적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는 길을 제공했다.

(탈레스적 무한소급: “땅은 물 위에 떠 있다”. 그러면 물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5) 탈레스 철학보다 발전된 부분

1) 아르케를 개별적인 대상과 더욱 분명히 구별하는 보편성을 찾으려 했다.

2) 아르케로부터 세계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

← 무규정자 : 만물이 그것에서 말미암아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 만물의 원질로서의 그 성격을 분명히 드러냄.

C. 아낙시메네스 Anaximenes

○ 아낙시만드로스가 남긴 과제 : 무규정자로부터의 개별적인 사물들의 생성 과정

- 다시 말해,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규정된 대립자가 어떻게 무규정자로부터 분리되는가?

만일 규정자가 무규정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면, 어떻게 무규정적인 것이 규정된 것을 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지, 또 만일 다른 것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은 또 무엇인지, 또 만일 무규정자 자체의 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변화의 필연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아마도 아낙시만드로스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아낙시메네스가 다시 자연물에 눈을 돌린 이유.

〈단편〉

(i) 만물의 아르케는 공기(aer)이다.

(ii) 공기의 희박화·농축화에 따라 사물이 나왔다.(come to be)

(1) (i)에 대한 주석

-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이루어진 추상적 사유가 퇴보했다.

⇒ 그러나 '아르케가 공기이다'라는 생각은 단순한 퇴보가 아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보다 '공기'가 생성과정을 설명하기가 더 쉬워서 아르케를 '공기'로 여긴 것일 것이다.

→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관찰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희박화) 숨을 내쉬면 더운 입김이 나온다.

사람들이 입을 작게 오무리고(농축화) 숨을 내쉬면 찬 입김이 나온다.

∴ 공기 희박 → 불이 생성됨

공기 농축 → 물, 흙이 생성됨

(2) 단편 (ii)에 대한 주석

- 생성과정(come to be)을 철학사에서 최초로 설명.

즉 아르케에서 현상으로서의 생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최초로 이루어짐.

⇒ "아르케에서 현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함.

; 이 점이 바로 아낙시메네스의 철학사적 의의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퇴보는 아니다.)

D. 밀레토스 학파의 특징들

① 질료의 문제 - ...으로 되어 있느냐 (주된 물음)

생성의 문제 -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아낙시메네스의 경우)

② 일원론적 경향 : 학적 설명의 이념이 되었다. 즉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밀레토스 학파는 이 단순한 것을 극단으로 몰아서 단 하나의 원리만을 추구했다. (일원론적 강박 관념?))

③ 물활론적 사고를 했다. 또는 인간학적 사유를 했다.

즉 인간에 적용되는 범주들을 사물세계에도 적용시켰다.

④ 세계의 무한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